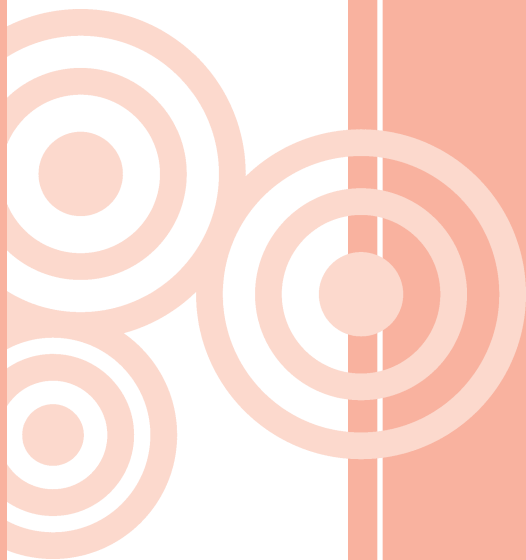


서울대 외국인 교수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현황

특집

# 서울대 외국인 교수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현황



# 서울대 외국인 교수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현황

## 특집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에 힘입어 현재 한국의 주요 대학에 임용된 외국인 전임교수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도 2009년 대학교육의 글로벌화가 새로운 화두로 논의되면서 각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 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 결과 현재(2010년 10월 기준) 서울대학교에는 전임교수 63명을 비롯한 총 215명의 외국인 교수가 재직 중이다. 그러나 국내 주요 대학 외국인 교수의 이러한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각종 지원체계의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정주환경, 행정체계의 비효율성과 언어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외국인 교수의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및 근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학내 외국인 교수에 대한 교수 지원사업의 경우는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비록 현재 국내 대학들이 각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수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교수지원 사업은 서울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외국인 교수 임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인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교수지원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11년 3월부터 학내 외국인 교수의 기본적인 현황파악과 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박은미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원

## I.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현황

### 1. 교수법 워크숍

외국인 교수에 대한 교육지원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Teaching Skill과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교육문화에 적합한 교수법이라든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티칭(Teaching)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적

합한 교수법, 학사제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는 서울대학교 교육문화에 낯선 외국인 교수들의 교수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지원부는 이러한 가정 하에 2차례에 걸친 외국인 교수를 위한 교수법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일 시		주 제	강 사
5월 20일 (금)	14:00 - 16:00	Drawing on SNU Classroom Culture for Successful Teaching in English	Robert Fouser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6월 3일 (금)	14:00 - 16:00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요구조사 분석	정채관 (서울대 교육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선임연구원)

5월에 실시된 1차 외국인 교수를 위한 교수법 워크숍은 ‘성공적인 수업(영어로 하는)을 위해 알아야 할 서울대학교의 교실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서울대학교의 간단한 역사 소개와 아카데미 컬처, 그리고 한국과 서울대학교의 교실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강의에 이어 다양한 토의 질문을 가지고 조별토론을 하는 형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사 자신이 외국인 교수로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에서의 티칭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내용은 참석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한국(서울대)학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후 6월에는 2차 워크숍이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요구조사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의내용은 외국인 교수들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된 이유와 수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들 그리고 그 기대의 부합정도 등을 묻는 설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 워크숍 역시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2차 워크숍 모두 참석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의평가는 만족도(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와 도움이 된 정도(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대한 문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차 워크숍의 경우 만족도 평가는 ‘만족’ (58%)과 ‘매우 만족’ (25%)이 응답자의 8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워크숍 내용의 강의 도움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 각각 73%와 9%의 응답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참석인원의 82% 이상이 워크숍이 강의에 도움이 되었다(혹은 될 것이다)는 데에 동의했다. 특히 강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코멘트와 아이디어들 그리고

잘 조직된 토의질문들은 참석자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바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역사, 교실문화 그리고 문화적인 이슈들에 대한 언급은 교수와 학생 양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서울대의 교실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없을 때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더불어 서로 전혀 교류가 없는 외국인 교수자들 간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고 교수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의견도 나왔다.

2차 워크숍의 경우에도 ‘매우만족’과 ‘만족’에 각각 33%와 44%의 응답이 나와 전체적으로 참석자의 77%가 만족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도움여부의 경우에도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각각 22%와 33%가 응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참석자의 반 이상이 워크숍의 내용이 자신들이 학생들과 수업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이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며, 상호 토론세션을 통해 각각의 교수자들이 지닌 영어수업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외국인 교수자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2. 외국인 교수를 위한 집담회

교육은 무엇보다도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분야이며 상호작용의 기본은 상호 공유된 문화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교수자들을 위한 집담회’는 외국인 교수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체험 과정과 관련된 간단한 한국어를 익힘으로써 한국생활과 업무환경에의 적응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형식은 기존의 내국인 교수의 집담회 형식을 변형 없이 차용하였고, 내용은 외국인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과 과별 혹은 과목별 교수자들의 모임이 아닌 외국인 교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체험과 한국어 습득을 통한 외국인 교수자의 강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4차례에 걸친 만남을 가졌으며 자세한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모임은 주로 집담회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 집중되었다. 참석자들은 한국어 습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집담회의 방향을 한국어 습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교수자를 위한 집담회’는

	일 시	장 소	참가자	강 사
1차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오후 6:30-9:30	· 호암 교수회관 상그리라	코디네이터 1인 외국인 교수 10인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서울대학교 문화 익히기
2차	2011년 5월 28일 (토요일) 오전10:00- 오후 3:00	· 정독도서관 · 서울교육 사료관 · 북촌한옥 · 인사동 · 한정식식당 · 전통찻집	코디네이터 1인 외국인 교수 3인 한국어 강사 1인 자원봉사자 3인	전통한국문화체험과 관련 한국어 익히기
3차	2011년 6월 18일 (토요일) 오후 16:00-17:30	· 국립국악원	코디네이터 1인 외국인 교수 3인 자원봉사자 4인	전통한국음악감상과 관련 한국어 익히기
4차	2011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16:00-17:30	· 국립국악원	코디네이터 1인 외국인 교수 3인 자원봉사자 4인	전통한국음악감상과 관련 한국어 익히기

첫째, 서울과 서울대학교를 익히는 것, 둘째,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글을 배움으로써 영어로 강의를 하더라도 좀 더 가깝게 학생에게 다가서는 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셋째, 강의를 좀 더 효과적이고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과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위해 운영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2차 모임은 주말의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서울 곳곳의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어울려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탐방하는 체험의 시간을 가지며, 부근의 한국적인 음식문화가 담겨있는 식당과 찻집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기고 그와 관련된 한국어를 학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정은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독도서관과 서울교육사료관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동행한 자원봉사자로부터 정독도서관과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전통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북촌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으로 선정한 인사동에 있는 상점의 간판과 진열된 물건들을 한국어로 간단히 설명하면서 한국어 공부의 시작이었다. 한정식 식당에서 버섯불고기 정식을 먹으며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양념과 재료의 한국어 명칭을 공부했고, 한옥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속담을 익히는 등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하는 그곳에 있는 현실들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속

답을 그에 상응하는 자국의 속담과 비교하기도 하고 속담에 관련된 배경설명을 들으면 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3차 모임과 4차 모임은 유네스코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고 그와 관련된 한국어를 익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차 모임에서는 환상적 소곡(이성천), 회심곡, 신갈대신무, 판굿, 민간대풍류, 피리 독주(염양춘), 보허자 등을 관람했으며, 4차 모임에서는 종묘제례악, 판소리(수궁가 중 자라 세상 나가는 대목), 가곡 영산재 중 작법 등을 관람했다. 관람 후 감상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고유의 무대배경, 고유문양과 전통악기의 명칭과 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학습이 이뤄졌으며 참가자들 스스로 한국어 학습욕구가 고취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다.



### 3. 영문 교수법 가이드북 개발과 제작

현재 내국인 교수자들을 위해 출판된 ‘교수법 가이드’와 ‘e-Learning 교수전략’을 외국인 교수들을 위해 영문화하고 이것을 교재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민혜리 연구교수의 저서 성공적인 대학수업을 위한 「교수법 가이드」는 교수자의 교수(teaching)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의 준비와 수업 설계부터 강의 진행과 점검, 질문과 토론, 학생 평가 등에 이르는 수업 운영기술과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학생 참여적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다. 또한 동 센터 이해정 연구교수의 내 강의를 업그레이드해주는「Blended e-Learning 교수전략」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다룬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Blended e-Learning’을 소개하고 그 활용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들은 이미 번역이 완료된 상태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외국인 교수자들을 위한 게시판 CTL-HFP(CTL Helpline for Foreign Professors)에 게시되어 있다. 사이트는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e-TL → My eTL → CTL-HFP(CTL Helpline for Foreign Professors)이다.

#### 4. 외국인 교수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외국인 교수를 위한 현 서울대학교 교수지원체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교수지원체제를 더욱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는 외국인 교수 대상 1차 인터뷰 단계이다.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발된 학내 외국인 교수자를 대상으로 1:1 혹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교수자들이 서울대학교의 수업과 생활에서 직면하는 전반적인 어려움들과 외국인 교수자들의 교수지원에 대한 욕구를 조사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교수자 대상 설문지 배포 단계이다. 이 단계는 1차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체 외국인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의 응답을 토대로 교수자들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자신의 교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과(Department)와 그렇지 않은 과의 외국인 교수자 지원현황을 비롯한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외국인 교수자들의 교수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외국인 교수자들의 Ethnography를 작성하고 외국인 교수자들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외국인 교수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 정비를 비롯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 12월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첫 단계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 II. 서울대 외국인 교수의 교수지원에 대한 제언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교육의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외국인 교수 임용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외국인 교수를 위한 교수지원체제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는 ‘외국인 교수자들을 위한 교수법 워크숍’, ‘외국인 교수자들의 강의개선을 위한 집담회’, 기존 내국인 교수자들을 위한 교수법과 e-Learning 가이드북의 영문 버전 교재 제작을 비롯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 교수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행된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으나, 본 프로그램이 더욱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교수법 워크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워크숍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스킬과 구체적인 토의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테크닉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의 역사에 대한 정보와 1차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서울대학교의 교실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워크숍은 학기 초에 실시해서 교수자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 교수가 영어로 하는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워크숍에 초청해 학생들의 관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집담회에서의 내·외국인 교수자들 간의 멘토십 형성이 필요하다. 집담회는 워크숍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정보들이 교환될 수 있는 자리이다. 또한 낮은 문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양분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담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국인 교수와의 관계형성이 요구된다. 내·외국인 교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반적인 서울대학교 교육 및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적응(예: 학점을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주는 데 대한 부담감 혹은 학생들의 교수평가를 영어로 읽을 수 없는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교수자들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에 좀 더 편하고 열정적이 될 수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교수자로서의 교육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게시판(CTL-HFP)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두 권의 교수법 가이드는 영문으로 번역이 완료되어 게시판에 올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활용이 미미한 상태이다. 게시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수법에 대한 팁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통한 교수자들 간 그리고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게시판의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된다.